

## 축산단지에도 공해방지시설 의무화

### — 환경청, 관계법령개정 검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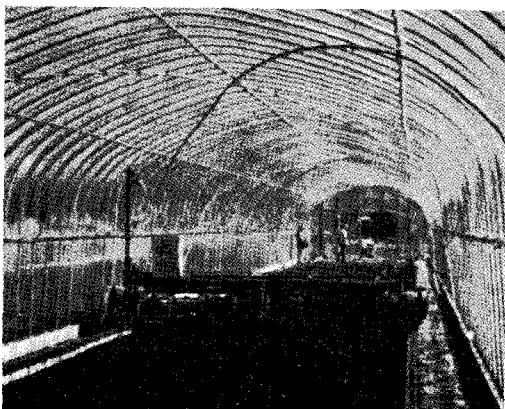
환경청은 축산단지에도 공해방지시설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이제까지 축산은 공해배출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어 동물의 분뇨를 하천에 직접 버렸을 때만 환경보전법 오물청소법·하천법에 의해 법적제제를 받았으나 많은 대규모 양축농가가 다양한 가축의 축분과 오수를 방류 이웃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직접 방류때만 그 제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환경청은 현행 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규제 대상 축산의 넓이를 소 2 배 $m^2$ , 말 5 배 $m^2$ , 돼지 50 $m^2$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동시행 규칙이 개정공포되면 현재 전국의 2백 73개 양축장(소 160개소, 돼지 113개소)이 적용을 받게되며 앞으로 배수처리 시설을 갖춰 배출물을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60ppm 이하, 부유물질 2백 ppm 이하로 정화 배출시켜야

한다.

환경청 집계에 의하면 전국주요 강과 하천의 오염도는 가정하수 42%, 공장폐수 44%, 축산단지 폐수 13%로 되 있다.



△ 정부는 공해배출업소에서 제외되었던 축산업에도 공해방지시설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축분 건조 발효 시설)

## 축산진흥회, 육계수매 비축사업 진행중

— 6월말 현재 5백톤 정도 수매 —

육계시세 하락에 따라 긴급한 농수산부의 수매방침 결정으로 축산진흥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육계수매비축 사업을 실시하여 6월 말 현재 약 500톤의 수매실적을 올렸다.

서울지역의 경우 수매가 시작되자 시중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수매에 응하는 생산자가 없어 약 20일간 중단되었다가 5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은 영육도계장(서울), 한일냉장(동두천), 영신식품(인천) 등 3개 도계장에서 수매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축산진흥회의 현지 수매방침에 따라 도계장 시설등 수매사업여건이 확보된 대구지역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부산지역은 6월 23일부터 수매가 착수되었다.

한편 수매사업에도 불구하고 위낙 침체된



△ 육계가격 지지를 위한 수매비축은 6월말 현재 500톤에 이르고 있다

시장경기로 인해 시세가 회복세에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일단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조제분유에 사용유당 절반은 국내산으로 제조

— 국산분유 재고 줄이기 위해 —

농수산부는 최근 국내원유가 체하되는 가운데도 조제분유에 수입유당을 사용하는 유가공업체에 이를 시정하여 유당수입을 강력히 규제, 조제분유에는 외국산 유당을 절반만 사용토록 조치했다.

국내 유당가의 높은 가격에 불과한 수입유당은 지난해 4천여톤이 수입되어 이 가운데 12천톤을 조제분유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재고분유 소비를 위해 농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를 위해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등 유가공업체에서는 앞으로 수입유당을 현재 사용량의 절반만 사용토록 촉구하는 한편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 대하여서도 두유(豆乳) 사용을 억제토록 종용했다.

당국은 이밖에도 분유재고 감소를 위해 삼양식품, (주) 농심등 라면메이커에 제조원 가가 다소 높더라도 분유를 사용한 신제품을 개발토록 촉구했는데 삼양은 이미 개발에着手 곧 분유가 든 라면을 선보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대규모 농산물수퍼마켓 설치 —농협, 둔촌동 주공 아파트에—

농협중앙회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 아파트 종합상가 지하에 대규모 농산물수퍼마켓을 설치, 연간 10억원 어치의 농축산물을 값싸게 직판 소비자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4억 3천여만원을 투자 7월 하순부터 개장할 4백 35평 규모의 이 대형수퍼마켓은 1백 60평의 국내 최대 판매장과 냉동·냉장고·창고·진열대와 국내 최초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예비실과 유아대기실등 초현대식 시설을 갖추게 된다.

농협은 둔촌수퍼마켓의 준공개장에 따라 신촌농산물수퍼마켓과 함께 2개 대형수퍼를 구축,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품질좋은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농민조합원의 수취가격을 높여주어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 밀도계 판매업소 고발

서울시의 도계법 일제 실시에 따라 시내 각 구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에 걸쳐 관내 1백 20개소의 무허가 도계장의 밀도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5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 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허가된 도계업소에서 도계된 도계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밀도살된 편을 판매하거나 생편을 그대로 진열 현장에서 도계하여 팔아왔다.

## 배합사료가격 자율화

### —7월 1일부터, 사료품질개선 위해—

농수산부는 배합사료의 최고가격지정제도를 폐지, 7월 1일부터 자유화 하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지난 1월 사료가격 자율화방침을 확정하고서도 이조치로 인한 가격동귀를 우려, 시행을 주저해 왔던 것인데 최근 대규모 사료업체의 등장, 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능력이 증대한데다 축산업계 不況까지 겹쳐 덤핑판매가 성행하게 되자 이 기회에 자율화를 단행케 된것.

이에따라 앞으로는 축산물의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배합사료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기하는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 품질향상과 서비스개선을 촉진시켜 양축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된다.

지난 76년이래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장도 최고가격을 지정, 운영해 왔으나 최근 이로인해 시장기능에 따른 사료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곤란하고 품질개선 및 새로운 양질사료 개발에 제약요인이 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80여개 업체가 난립해 있는 사료업체는 더욱 치열한 판매경쟁이 예상돼 가격인하, 품질향상등 축산농가들에는 매우 반가운 현상이 일어날듯.

특히 소규모 양축농가들이 값싸고 질좋은 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지난해부터 계속된 불황속에서 살길을 찾던 농민들은 오랜만에 농수산부가 취한 시원한 처사에 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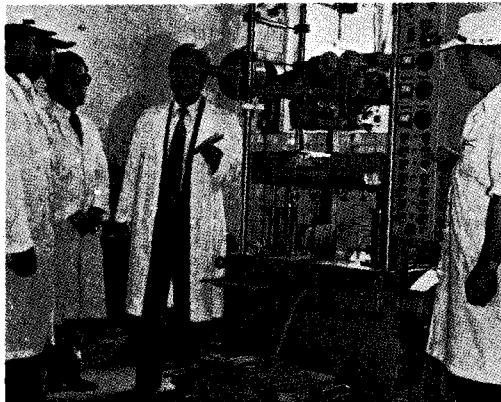
## 육가공공장 시설자금 7 억지원

### —한국냉장등 2 개업체 선정—

농수산부는 육가공장증설을 위해 축산진흥기금에서 7 억원을 응자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육가공시설자금은 한도액이 7 억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농개공자회사인 한국냉장의 신규공장 건설을 우선 지원하고 민간업체 가운데 시설증설을 희망하는 업체 1 개소를 축산진흥회에서 선정하도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수산부는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육가공시설 확대를 유도, 이미 롯데·제일제당등 대기업에서 공장건설에 착수했으며 진주햄소세지, 협진식품등 기존업체들도 시설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농수산부는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육가공 시설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 도축장 건설위한 차관도입 예정

### — 축진, 냉동·냉장등 부대시설 갖춘 대규모 도축장건설 —

축산진흥회는 대규모 도축시설 및 냉동공간설을 위해 상업베이스로 덴막 또는 스웨으로부터 1 천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축산진흥회에 따르면 1 일 소 1 천마리 돼지 천마리, 닭 1 만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현대식 도축시설과 부대시설, 냉동공장을 내년초에 착공하기 위해 서울시나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시설자금 추백 20억원중 약 60억원을 외자로 조달

할 방침아래 상업베이스로 1 천달러만 차관도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스웨덴과 덴막측에서 이 차관을 공여할 뜻을 밝히고 차관 조건까지 제시했는데 덴막의 경우 년리 8%, 1 년 6 개월거치 8년 균분 상환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가 이 도축장부지로 물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근교로서 판교가 입지적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적격의 부지를 곧 선정할 것이다.

## 유럽의 사료공업, 영양학 세미나 개최

### — 佛. 롱프랑그룹의 한국지사 로디아·코리아주최 —

프랑스제 1의 화학그룹인 롱-프랑(Rhône-Poulenc) 회사의 한국지사 로디아 코리아에서는 7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프라자 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유럽의 배합사료 공업과 영양학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90여명이 참석 학계, 사료, 동물 약품업계 연구기관의 관심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럽의 저명한 영양학자가 강사로 초빙되어 미국과 유럽의 축산의 비교와 함께 유럽의 육계·산란계·양돈의 단백질영양과 최근 유럽 영양학의 연구동향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아울러 프랑스의 축산업소개도 있었는데 축산업에 있어서 입지조건이 양호한 프랑스는 유럽諸國에 있어서 중요한 축산국이며 또한 유럽농산물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유럽의 배합사료공업에서 생산에 따른 절약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 최소가격사료생산을 위해 아미노산의 많은 연구가 행해

지고 있으며 일부학자는 아미노산의 유효성에 대하여서 유효 라이신을 사양표준에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기존 아미노산의 이용에 한계를 느껴 단세포 단백질등의 새로운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결과는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논하였다. EEC제국은 사료단가 절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반드시 실험에 의해 도입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축진, 돼지고기 가공품 생산

### — 비축돈육으로 통조림 가공 —

축산진흥회(회장: 함만준)는 80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비축돈육가공원료 4천 1백 50톤으로 육가공품(통조림)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번 생산되는 품목은 돼지고기장조림

(175g캔), 조미돼지고기 (370g캔) 등으로 현재 한국냉장<주>과 대한종합식품<주>에 위탁가공 생산중이며 6월 말 현재 돼지고기장조림 6만 7천상자(1상자 48캔), 돼지고기 4만 4천상자(1상자 24캔)가 생산되었다.

축진은 곧 판매가를 결정해 시판 할 것이다.

## 5 월중 양계용 배합사료 17만1천6백여톤 생산

— 전체사료 생산량은 28만8천27톤 생산 —

5 월중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28만 8 천 27 톤으로 4 월중 26만 9 천 3 백 65톤에 비해 6.9%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양계용 배합사료는 17만 1 천 6 백 83톤으로 전월대비 14.9%가 증가 하였다.

한국사료협회(회장: 정태원)가 발표한 5

월중 배합사료 생산 실적에 의하면 양계용배합사료중 전월대비 육추사료 19.3% 산란계사료 7.8%, 육계사료 32.2%가 각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금년도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 실적은 다음과 같다.

\*금년도 양계용 배합사료 생산실적(단위 M/T)

월별	육 추 사 료				산 란 계 사 료				육 계 사 료				누 계
	초 생 총	종 총	대 총	소 계	초 기	중 기	말 기	종 계	소 계	전 기	후 기	소 계	
1	2,438	7,209	17,025	26,672	88,385	36	117	23,839	112,437	7,785	16,335	24,120	163,229
2	2,535	4,241	13,999	20,775	63,469	149	140	16,674	80,432	6,077	5,329	11,406	112,613
3	4,237	4,522	11,137	19,896	71,804	158	140	20,179	92,281	12,890	9,909	22,799	134,976
4	4,789	6,427	8,775	19,991	65,577	12	161	24,706	90,456	17,601	21,436	39,037	149,484
5	4,864	8,275	10,709	23,848	68,967	27	197	28,356	97,547	19,956	30,332	50,288	171,683

### 난분, 유당등 수입규제 요청

— 생산자 보호 위해 —

농수산부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계란제품·유당등 일부 품목의 수입을 계속 규제해줄 것을 상공부에 요청했다.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난분과 유당은 AA 품목으로 수입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감시품목으로 지정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지 않을 경우 양계농가 및 낙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농수산부는 또 국내양봉업자 보호를 위해 AA 품목인 인조꿀 수입을 규제해야한다고 지적, 감시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상공부에 요청했다.

### 기금융자 대상자 선정권

#### 축산진흥회로 이관

농수산부는 냉동·냉장공장 건설자금등 축산물유통시설 근대화를 위한 축산진흥기금 지원대상자 선정권을 축산진흥회에 위임했다.

6월 21일 농수산부당국에 따르면 축산물 통구조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축산진흥기금 사용자는 시도의 확인 추천을 거쳐 농수부 장관이 선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이 기금 관리운용하고 있는 축산진흥회 회장에게 선정권을 위임했다.

## 할당관세대상 67개품목 확정

—재무부 7월 1일부터 시행, 평균세율 8%로 내려—

정부는 석유화학등 기초원자재의 관세인하와 생필품원료등 주요물자의 수급원활과 농기계의 관세율인하 등을 위해 하반기에 적용할 할당관세대상 품목을 식료품에서 밀·콩우지등 10개 품목을 위시한 66개를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하반기중 8백 74억원 상당의 자금부담을 덜게 된다.

66개 품목별 할당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할당관세

품 명	관 세 율 (%)	
	기 본	할 당
냉동어류	25	10
냉동오징어	25	10
소 맥	5	무 세
우 수 수	20	10
코 프 라	20	10
대 두	20	10
우 지	20	5
팜 유	30(20)	5
원 당	54원/kg	34원/kg
조 주 정	100	50
남 사	5	무 세
등 유	5	무 세
경 유	5	무 세
방 카 C 유	35	무 세
신 유	38	15
노말파라핀	25	무 세
황 린	20	10
소 다 회	30	10
벤 쟈	10	5
반도체소자제조용금청산칼륨	20	10
프로필렌	10	5

품 명	관 세 율 (%)	
	기 본	할 당
오르로크실렌	10	5
파라크실렌	10	5
스티렌(SM)	20	5
프로필렌유사이드(PO)	20	10
테레포탈산디메틸(DMT)	20	10
반도체소자제조용 사진판	40	20
반도체소자제조용 규소판	30	15
연성알릴벤젠	30	15
반도체소자제조용 성영수지	30	15
초산염유소	20	10
천연고무	20	10
펄프용재	5	무 세
미송원목	10	5
라왕원목	5	1
연필제조용상나무	20	10
제재목	20	10
펄프칩	20	10
합판용연판	30	15
펄프	10	5
고지	10	5
전기철연지 및 콘덴서지	20	10
전기철연지 및 콘덴서지	40	30
원면	5	무 세
고철	5	무 세
해면철	10	5
불루울	10	5
핫코일	15	5
석도원판	20	10
합금강빌리트	10	5
고탄소강핫코일	10	5
스텐레스핫코일	10	5
합금강무계목강판	25	15
보통강무계목강판	25	15
단조물	30	15

품 명	관 세율 (%)	
	기 본	활 당
반도체소자제조용합금·동	20	10
동 박	20	10
닉 철 피	20	10
연 설	10	5
연 피	20	10
방 제 기	15	부 세
수확날짜기	15	
예 채 기	15	"
바 인 더	15	"
보행트래터	20	"
해체용선박	15(5)	"

△ 긴급관세

품 명	관 세율 (%)	
	기 본	긴 급
금속압연기의로울	15	20
웨라이트마그네트(영구자석)	15	30

## 서울시 정육점 신규허가 계속 규제

### —기존 업소 만으로 불편없어—

서울시는 기존정육점만으로도 육류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 신규허가를 계속 규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당국은 신개발지역이나 신설시장 등에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허가를 해고 있으며 그의 기존지역에는 소비자들의 용에 불편이 없으며 기존업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신규허가는 억제해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확정했다.

현 보사부는 지난 4월부터 쇠고기·돼기의 소비증진을 위해 지방설정에 알맞

는 범위내에서 신규허가 억제를 대폭 완화해 쇠고기·돼지고기 소비를 촉진시키도록 시도에 시달한 바 있는데 서울시의 이같은 최종 결정에 따라 일반정육점의 신규허가는 계속 규제를 받게 됐다.

## 겨울철 점등으로 우유증산 가능

### —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 연구결과 —

미국 Illinois 대학의 Mike Hutmens 교수에 의하면 미국의 중부부지역에서 겨울철 해가 짧을 때 점등을 통해 우유의 증산과 후보축 성장촉진 시험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한다. 실제로 Michigan 주립대학이 행한 시험에서 겨울철에 16시간까지 점등처리한 결과 송아지를 포함한 후보우의 발육이 17%나 향상되었으며 착유우의 경우는 우유생산이 7% 증가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이 시험결과를 적용해본 결과 비슷한 성적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나 점등을 24시간 연장한 경우는 자연상태에서 사육한 경우와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이때 사용된 광원은 형광등과 수은등이었으며 광도는 20Lux를 유지했다. 점등비용은 일일두당 4센트였다고 하며 이로인해 증산된 우유생산액은 41센트나 되었다. 사료 섭취량 또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겨울철 날씨가 물시 추워음에도 불구하고 16시간 점등구에서 사육된 젖소의 털 길이가 보통의 경우보다 짧았으며 다른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 도시인 농민보다

### 양곡소비량 적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

농수산부가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시인들은 농민들보다 양곡을 훨씬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1일평균 양곡소비량은 0.569ℓ 쌀 0.464ℓ, 보리쌀 0.050ℓ 인데 비농가는 1일평균 0.518ℓ 쌀 0.443ℓ, 보리쌀 0.028ℓ 을 소비하는 데 반해 농가는 0.686ℓ로 하루 0.168ℓ나 더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인과 농민간의 이같은 양곡소비차이는 식생활 소비패턴의 차이를 뜻하는 것으로서 도시인들은 육류, 생선등을 많이 먹는데다 간식이 많기 때문에 양곡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연도별 국민전체 양곡소비추세를 보면 해마다 소비량이 줄어들어 70년도에는 국민 1인당 520.6kg 을 소비했는데 비해 10년뒤인 79년도에는 78.8kg 이 줄어든 446.8kg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국민소득 향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져 식생활 소비패턴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도시주변 돼지 뇌염예방주사

### —농수산부, 9만두 대상—

정부는 여름철에 사람과 가축에 전염하는 돼지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초부터 도시주변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9만마리에 대해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인구 조밀지역과 도시주변 양돈농가 및 종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모기가 활동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예방주사를 끝내도록 하고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 기업 양돈장은 자율적인 방역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 소독 및 각종 예방주사를 철저히 시행토록 했다.



△ 서울시는 인구조밀지역과 도시주변 양돈장의 사육돈에 대해 뇌염예방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韓國家畜改良史」호평리 배포중!!

찬조구독가 권당 20,000 원 (한정판이므로 선착순 배포)

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 22-1570 · 7656

## 축산정책 재검토

— 정장관, 기업축산 지원지양

### 농가부업 권장 —

정종택 농수산부장관은 외국사료곡물의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진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초식가축을 일반농가에서 기를 수 있는 부업축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택  
농수산부장관)

정장관은 옥수수·대두 등 사료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면서까지 기업축산을 육성해야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앞으로 기업축산의 지원육성을 지양하고 토끼·염소 등 초식가축 위주의 농가부업축산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작년 농산물수출고 61억불

— 작년대비 17% 증가 —

나나다는 지난해 61억달러의 농산물 수출을 올려 전년보다 24%가 증대돼, 사상 최대 기록을 수립했다.

연 같은 기간중 농산물수입액은 17%가 47억달러에 불과해 나나다는 농산부

## 전국에 12개 유통단지

— 84년까지 일천육백억들여 —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工產品의 유통구조를 대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84년까지 内外資 1천 5백 91억 8천 8백만원을 투입, 서울·釜山·大邱를 비롯한 도청소재지 급이상 전국 12개도시에 1개소씩의 종합 유통단지를 연차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관제당국에 의하면 서울·釜山·大邱·水原·春川·淸州·大田·全州·光州·濟州·馬山 및 蔚山 등 12개 주요도시에 농축산물 및 공산품 도매시장 화물 터미널 보판시설 및 기타지원시설을 갖춘 종합 유통단지를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상반기중에 서울 종합 유통단지를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합 유통단지를 4개 유형으로 분류, 서울(大型)에는 대지 15만~25만평 延建坪 10만 3천평 규모, 부산과 대구(中型) 대지 6만평 延建坪 1만 8천평, 춘천·대전·광주(小型A) 대지 3만평 延建坪 8천평, 수원·청주·진주·제주·마산 및 울산(小型B) 대지 2만평 延建坪 6천 5백평 규모로 건설키로 했다.

문에서 14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나나다는 79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보리는 전년보다 32%, 밀은 14%, 채종실은 31%, 그리고 아마종실 64%가 늘어났는데 이들 품목은 전체 농산물 수출고의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된 품목은 밀가루·옥수수·식물성 박류, 대두 등이 있다.

## 식용유용 유채 과잉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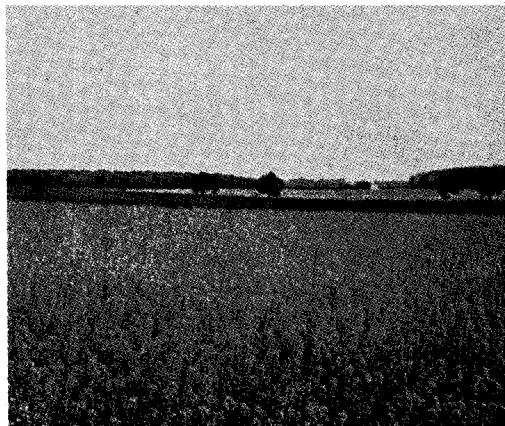
### — 식용유업체 유채실인수 기피움직임 —

식용유생산의 원료작물 油菜의 재배면적이 당초계획보다 크게 늘어나 수매문제를 싸고 농수산부와 업자간에 마찰이 있을 것 같다.

농수산부는 지난해 유채(實) 생산량은 1만 1천 7백ha에서 2만 7천 4백톤이 생산되었으나 수요감퇴로 식용유생산업체에서 유채 실 인수를 기피해 올해는 식부면적을 9천 9백ha로 출일계획이었으나 최근조사 결과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많은 1만 3천여ha로 늘어나 수매가격 및 수매물량 책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동방유량·삼양식품등 식용유 생산업체는 농수산부가 수지채산이 맞지않는 유채 실을 대두수입 기준으로 거의 강제로 할당했다고 지적, 올해는 불황으로 인한 구매력감퇴를 감안, 결손보상 대책도 없이 유채실을

업체별로 할당 안수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당국과 실수요업체간에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 재배중인 식용유생산 원료작물 유채밭

## 농협, 상호금융운용요령 개정 — 담보물 감정, 사전심사제 폐지 —

농협은 지난 6월 4일 상호금융 운용 요령을 개정, 농업금융의 주도적금융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계좌와 사채등 사금융을 상호금융에 흡수토록하고 1兆금고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를위해 상호금융자금운용 요령을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단협의 전결취급한도를 늘리며 1인당 융자한도와 범위를 크게 넓혀 6천 3백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자금을 신속히 공급, 농민편익을 최대한 도

모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운용 요령을 보면 자립조합에 한하면 자립예탁금대월 취급을 전단협으로 확대하고 예수금규모 20억원 이상인 단협도 1인당 5백만원까지 군조합승인없이 대출하며 군조합의 담보물감정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5백만원이하 융자시에는 담보물감정을 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금대출과 적금담보대출의 이자는 월부금 납입시 선취토록하고 납입액의 8까지이던 적금담보대출한도를 1백%로 하고 자기소유 농지가 없는 조합원에 대해 영농실태조사 없이 융자할 수 있도록 했

## 미국산 농산물의 가격상승 불가피 예상

### — 국내 농업부문 투자확대 긴요 —

미국의 식량무기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라는 농업부문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투자를 확대, 생산을 증대할 계획인 것으로 산업은행 조사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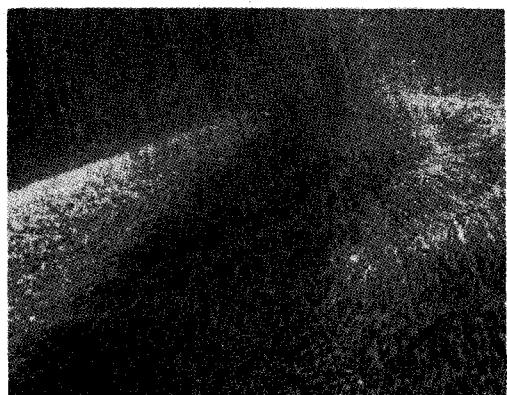
이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산유국의 석유무기화로 대두된 미국의 식량무기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식량증산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사서는 지금까지 세계곡물 수출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이 과거의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저가정책을 시장실세에 맞는 가격정책으로 전환, 농업소득지지 및 과잉농산물처분에 따른 정부보상 용자 보관비등의 재정부담을 축소함으로서 80년대는 곡물가격상승율이 전체물가상승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은 늘어나는 비농업부문의 무역적자를 농업부문의 흑자로 메꾸어 나갈 것으로 보여 미국산농산물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저적했다.

따라서 오는 85년에는 48억 1천 6백만명에 이를 세계인구증가율을 식량증산이 뒤따르지 못할것으로 보여 식량수입의 대미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보다 항구적인 농업정책을 시현, 충분한 비축재고를 보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태국, 타피오카 수출 400만톤에 그칠듯

### — EC 수요 크게 줄어 —

전세계 타피오카 수출량의 95%를 공급하고 있는 태국은 지난 78년 6백 20만t을 수출하여 기록을 세운 이래 지난해에는 4백만t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작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사료 곡물협회 한국지부에 따르면 타피오카는 지난 65년까지만해도 전분이나 식

품가공원료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 EC 회원국들에 의해 가축사료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는데 전세계 총생산량은 1억t 정도로 태국이 5천만t을 생산하고 나머지 50%는 브라질·인도네시아·나이제리아등 3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 태국, 옥수수 생산 지난해 보다 13% 감소예상

태국의 1980/81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작년도의 330만톤보다 약 13% 감소한 290만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도 태국의 옥수수 생산목표는 350만톤이었는데 이렇게 생산이 감소하게 된 주요인은 전조한 날씨 때문이라 한다.

한편 옥수수 소비량은 지난해의 110만톤보다 18~27% 증가한 130만대지 140만톤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도 수출가능량은 작년도의 220만톤보다 60만톤이나 감소한 160만톤 내외가 될것이라고 한다. 이중 5~10만톤 가량은 소련에 수출하기로 이미 계약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육우 수입 요령 일부 개정

### －자가농가에도 수입 허용－

농수산부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육우수입추천요령을 일부 개정, 지금까지 농협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던것을 자가사육을 목적으로 농가에서 수입을 희망할때는 입신한 육우는 60마리 이상 육성육우는 1백 30마리 이상에 한해 수입 추천을 해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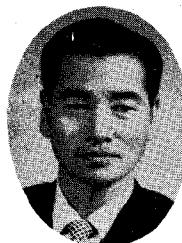
농수산부가 개정한 수입추천 요령에 따르면 육우 수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마리당 개량초지 0.4 정보이상이거나 개량초지 0.2 정보와 사료포 0.1 정보 그리고 마리당 1.5평 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군과 도의 확인을 거쳐수입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업계 단신

○ 한인규(서울농대교수, 한국 영양사료 연구회 상무이사) : 6월 11일부터 로마에 있는 FAO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사료 정보센타 연합회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였다. 한교수는 동회의 기간중 한국의 사료문제에 대해 30분간 연설을 하였다.



(한 인 규)



(김 영 회)

○ 영육농산(대표 : 김영회) : 인천남항에 2 천톤 수용능력의 싸이로 3 기와 1 천톤급 1 기등, 싸이로 4 기와 일산 300톤 규모의 배합사료 공장을 81년 6월 준공 목표로 건설할 계획.

○ 롯데축산 : 새로운 유산균발효유 「비피더스 요구르트」를 개발 시판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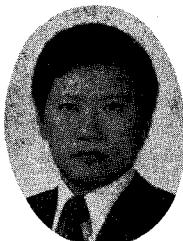
○ 비축돼지고기 방출 : 농수산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지의 생돈가격이 8만원 (90kg 기준) 선을 상회 할 경우 비축중인 돼지고기를 방출할 예정.

○ 연우산업사(대표 : 강장원) : 침대용, 보온온상용으로 널리 알려진 동사는 양질의 양계용 보온덮개를 양산, 시판중에 있다. 주소 : 인천시 북구 부개동 120번지(부평동 중 옆) ☎ (인천) 5-160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 김보현) :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향과 방법모색을 위한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협의회를 6월 9일 동원 회의실에서 개최 우리나라농가의 금융현실, 농업금융조달방법, 농업금융의 자금공급 방법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부국사료〈주〉(대표 : 한호섭) : 사세확장에 따라 최신자동 기계 설비의 신공장을 7월초 기공할 예정.

○ 허신행(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수석 연구관) FAO와 공동연구사업인 한국 축산 및 사료정책의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로마 FAO본부로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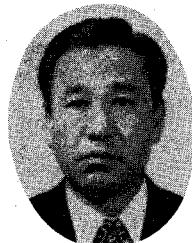
(허신행)



(조영웅)

○ 조영웅(중앙약품 기획부장) : 7월 1일부터 신화무역상사(대표 : 조성웅) 업무이사로 취임. 동사는 농업용, 가정용, 산업용 물 처리관계(정수기) 회사이다.

○ 신촌사료〈주〉(대표 : 장동식) : 경기도 김포군에 대규모 컴퓨터식 현대화 공장을 준공 가동중인 동사는 미국에서 최신형 펠렛제조 기계를 수입설치하여 펠렛 사료를 생산개시, 월산 2천 4백톤의 생산이 가능, 육계전기, 후기등 양계사료와 양돈, 축우사료를 펠렛생산화하여 사양실험 중인 바 육계사료의 경우 15% 이상의 사료효율을 개선 증체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각종 펠렛사료의 제품 및 효과를 수록한 안내 팜프렛을 발간 배포하고 있는 바 희망자는 연락하면 무료우송해 주고 있다.



(장동식)



(강금노)

○ 강금노(한국원종농장대표, 전 한국 갑별협회 회장) : 농장에서 작업중 우측 무릎을 다쳐 시내 서소문 소재 한일병원 209호에 입원 가로중 연락처 ☎ (372)9448

○ 대주산업(대표 : 정은섭, 구 한국축산개발) : 영국 Format컴퓨터회사로 부터 컴퓨터를 도입 운영하여 사료의 제조판매 및 김해 양계장의 양계경영까지 전산화.

○ 한축(주) : 동물약품 도매업체인 동사는 우수 수입약품, 수의용 의료기구 판매개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158-2 동도상가 104호 ☎ (555) 7384.

○ 전휴상(한국낙농협회회장) : 제 5, 6, 7, 8 대 국회의원으로 전 국회농수산 위원장과 전양묘협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전휴상 씨가 숙환으로 지난 6월 23일 별세, 유족은 부인 김시종여사와 2남 1녀



(故 전휴상 낙농협회장)

발인 : 6월 25일  
장지 :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평내리 가족 묘지.

○ 공항축산약품상사 : 김포·강화지역 양 축가 씨 서비스를 위해 강서구 방화동 621-12 (공항로타리)에 공항약품상사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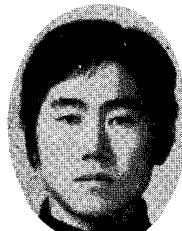
☎ 66-0510

대표 : 이경선(수의사 서울대 수의대졸 전 유한양행)

김호용(연암축산전문대학)



(이경선)



(김호용)

○ 미국사료곡물협회 : 유럽지역담당 낙농 전문가 William E. Julien 박사를 초빙 6 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천안·수원 등지에서 대규모 낙농경영에 대한 자문과 세미나 개최.

○ 우수식품·의약품전시회 개최 : 농수 산부와 보사부가 주관한 제 11회 우수식 품·의약품 전시회가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60개 업체에서 1천여점의 우수 제품이 출품된 가운데 창경원 특별전시관에서 개최.

○ 서주산업 : 7월 초순부터 아이스 크림과 빙과를 생산 시판할 예정. 제품은 「서주아이스주」와 「서주 아이스조」아이스크림.

◇ 과학축산(대표 : 이태일) : 사세화장에 따라 전화증설 ☎ (792) 7212, 7887.

◇ 대한제당<주>(대표 : 민중기) : 대표전 화 신설 771-58, 직통전화는 778-8257 로 변경 없으며 무지개 사료 영업부 구내 교환 번호는 717, 721번.

◇ 우성실업<주>(대표 : 정인범) : 대전시 전화번호 국번 확대로 전화번호가 (72) 1101~8까지로 변경, 업무부직통은 (72) 2601~2.

◇ <주>유한코락스 : 전화번호 변경 (714) 5113~4.

◇ 서원산업<주>(대표 : 곽용승) : 전화번호 변경 (천안) 2-8711~9.

◇ 한국바이엘화학<주>(대표 : 김길원) : 영업부 직통전화 신설 ☎ (66) 5152~4.

◇ 전양사료 : 공장이전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주소 : 경북 경산군 진량면 선화동 251 ☎ (8) 4111~2 (진량) 2069.

## ● 축산 뉴우스

◇ 한국사료 향미 양행 : 사무실 이전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 23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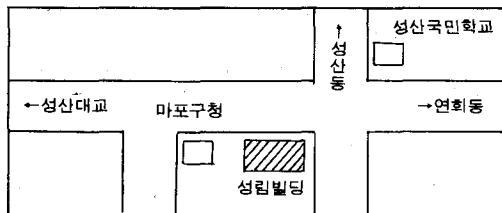
☎ (445) 9227.

◇ 현대 약품공업〈주〉(대표 : 진수창) :

7월 1일부로 사무실 이전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86-4(성립빌딩)

☎ (33) 7281~4 〈사장실 직통〉 34-8429.



### 업계 인사

◎ 신촌사료〈주〉(대표 : 장동식) : 신공장 준공으로 본격 생산에 따라 업무부와 영업부를 보강, 영업부장에 이찬수(전 업무부장)씨를, 업무부의 안동욱씨를 영업부로, 홍성 출장소장에 황선광씨를 인사 발



(조 창 수)



(정 해 웅)

령하고 업무부장에 정해웅(서울농대졸 전 중앙축산)씨를 이돈의(전대 사료과졸)씨와 장시열(미국 남가주대학)씨를 업무부에 신규채용.



(장 시 열)



(김 수 문)

◎ 제일화학공업사(대표 : 서정범) : 영업제 2부장에 김수문(전 양북개발물산)씨를 기용.

◎ 봉명부회장(대표 : 차상진) : 생산부장에 광영주(전 대성미생물)씨를 특채

◎ 한일농원(대표 : 차두홍) : 영주 출장소 개설(경북 영주시 1동 57-1 ☎ 4702)에 따라 영주출장소장에 권창호씨를 기용하고 본사 영업부에 김봉주(전대 축산파출)씨를 특채.

◎ 월간종합축산(대표 : 조성용) : 편집부 편집기획과장에 강정실 씨를 특채.

◎ 한국화이자〈주〉(대표 : 김중배) : 박호인, 여운돈씨를 각각 과장대리로, 영업부 김세린씨를 주임으로 승진발령.

◎ 서울미원〈주〉(대표 : 김종의) : 천안 출장소 신설로 소장에 서충열(전 업무부대리)씨를 발령하고 수원지점에 신남섭 주재원을 발령.